

부처님 자비 하나님 사랑 만났습니다이~

경북 예천 불교-천주교인 한마음 큰잔치



게임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는 불자-천주교인.



공을 피하다 엉덩방아를 찧는 수녀님.



경기를 지켜보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게임에 나섰다.



흥겨운 장단과 춤사위로 분위기를 띄우는 풍물패.

6월 25일 경북 예천군 예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은 웃음과 화합의 바다였다.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이 안타깝게 좌절된 전날의 짙은 기분이 맑게 걷힌 날이었다.

정오가 되자 비구 비구니 스님과 신부 수녀님 그리고 불자들과 천주교 신도 300명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제4회 불교·천주교인 한마음 큰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지역 불자들과 천주교인들의 화합을 다지고 함께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천 불교 정법회(회장 남시우)와 예천 천주교회 사목회(회장 장국희)가 매년 주최해 오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열리지 못해 아쉬움이 컸는데 올해 다시 열려 더욱 기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새롭게 결성된 예천불교청년회(회장 최순식)가 불교 측 주최로 나서 불자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불교계에선 예천불교사암연합회장 정안 스님을 비롯한 지역사찰 스님과 불자 150여명이 참석했고, 천주교계에선 예천성당 정희욱(대전 안드리아) 신부님을 비롯한 수녀님과 사목회원 150여명이 참가했다.

엉덩방아 찧어거며 투혼

두 종교인들이 만난 것은 정오. '금강산도 식후경' 이고 '금강경도 식후독' 이라고 했는가? 먼저, 예천 성당에서 준비한 맛있는 국수 한그릇에 참가자들이 마음과 마음을 풀어놓으며 하나가 됐다. 재작년 행사 때는 불교계가 음식을 준비했으나 이번에는 천주교측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불교계는 대신 홍보와 기획 진행을 맡았다.

오후 1시, 드디어 '빅매치'가 시작됐다. 개회식에 이어 먼저 벌어진 경기는 배구.

"불교, 불교 파이팅!!!"
"천주교, 천주교 파이팅!!!"

경기가 시작되자 몸을 부딪치며 함께 웃고 소리 지르는 가운데 한마음큰잔치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비구니스님과 수녀님이 함께 맞붙은 손은 뜨거웠고, 하나로 녹아드는 웃음은 시원했다.

남자 5명, 여자 4명이 한 팀을 이뤄 겨룬 배구는 천주교팀이 앞섰다. 그러나 족구는 연방사 일방 스님의 맹활약으로 불교팀이 이겼다. 비구니스님과 수녀님 각각 2명씩이 포함된 가운데 진행된 피구는 수녀님이 엉덩방아까지 찧어거며 투혼을 불살랐지만, 몇 차례나 공을 낚아챈 명봉사 회광 스님과 월명사 나현 스님을 당해내진 못했다. 매 경기마다 출



예천지역 스님과 신부, 수녀, 불자와 천주교 신도들은 지역 화합을 위해 함께 체육대회를 연다. 스님과 수녀들이 피구경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하는 스님과 신부님, 수녀님들의 빛나는 투혼은 웃음과 화합의 촉매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응원전도 대단했다. 신나는 함성소리가 그칠 새 없이 울려 퍼졌고, 아쉬운 탄식도 흘러 나왔다. 정희욱 신부는 경기 사이사이 풍물패와 함께 특유의 코믹 춤사위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리드했다.

이에 질세라, 예천사암연합회 부회장 도문 스님도 경기마다 사력을 다해 응원하고, 응원했다.

"할매 할매 다 모이소!"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도 돋보였다. 실내체육관 앞 강단 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석이 마련돼 있었고,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편히 경기를 관람했다. 또, 각 팀별 20명의 어르신들이 30여 미터를 달려가 밧줄에 매달린 뿔뿔이 과자를 먹고 돌아오는 릴레이 경기에도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불교, 천주교 할매 할매 다 모이소!"
"천주교 할매는 나왔는데 불교 할매는 없었어?"

사회자의 구수한 멘트에 이끌려 체육관 한가운데로 모인 예천 어르신들의 릴레이는 시끌마울잔치의 진풍경을 드러내며 인기를 끌었다. 수줍은 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못내며 손사래를 치던 할매의 달음박질은 일품이다. '내 체면에 뭘 수 있냐'는 듯 할매들의 점잖은 걸음걸이 릴레이는 보는 이들이 배꼽을 잡게 했다. 뿔뿔이 과자를 따 먹는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밧줄을 꼭 잡고 먹는 할매, 손으로 냉큼 따서 먹는 반칙왕 할매도 있다.

"하나 둘 셋 넷... 스물일곱"
7명의 선수가 함께 뛰는 줄넘기, 불교팀은 뿔 때 마다 스물을 넘기는데 천주교팀은 열을 넘기가 어렵다.

"절에 모여 줄넘기만 한 모양일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농담에 웃음바다가 됐다.

뿔뿔이해도 체육대회의 꽃은 줄다리기. 불교팀은 사암연합회 부회장 도문 스님과 용화사 천후 스님, 정법회 남시우 회장이 맨 앞에 나섰고, 천주

교팀은 정희욱 신부님과 수녀님이 앞에 나섰다. 징소리와 함께 밧줄이 팽팽히 당겨졌다. 시작하자마자 천주교팀으로 밧줄이 속 당겨지는가 싶었는데 불교팀이 마지막 괴력을 발휘했다. 불교팀 승.

"절에 모여 줄넘기만 한 모양일세, 걸걸"

이렇게 운동경기로 한 호흡을 하던 경기가 모두 끝나고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이 이어졌다.

"부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짧은 인사를 하고 도일 스님이 뜨거워진 열기를 식히려는 듯 기타를 들고 무대에 나섰다. 그러나 열기는 더해만 간다. 스님에 이어 신부님이 노래 할 차례다. '일송정 푸른 숲'을 부르는 순간 오페라 부대의 환호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천주교신자들에게는 예수찬미, 불자들에게는 아미타불."
예천지역의 '명가수' 일방 스님이 노래할 때는 스님과 신부님 수녀님이 재가신자들과 함께 나가 덩실 덩실 어깨춤으로 어울렸다. 성직자의 위엄도 잠시 내려놓은 채 모두 하나가 됐다.

예천불교사암연합회장 정안 스님은 "자신의 신앙에 집착한 나머지 종교간 반목을 가져오는 슬픔이 벌어지는 이때 하루의 체육대회를 통해 모두 화합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기뻐했고, 정희욱 신부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었고, 부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는 종교인이 하나 되는 자리였다"고 만족한 미소를 보였다.

삼품 한아름 받아가니 흥이 난다
예천불교청년회 최순식 회장은 "사랑과 자비라는 아름다운 정신을 지키며 두 종교인들이 진실로 열린 마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찾아 좀 더 참다운 삶을 영위하는 밑그림을 그릴 날이었다"고 말했다.

비록 반나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천의 불교 천주교인들은 마음가득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가되는 즐거움과 행복은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추억이다. 게다가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종기, 자전거, 이불, 모시 수속, 양파, 스님이 기증한 반야심경 액자 등 이날 행사를 위해 불교 천주교 측에서 심혈을 기울인 기증품은 푸짐한 삼품도 한 아름씩 받아가니 흥이 흥이 더 해진다.

글·사진/예천=배재선 기자

두 종교 성직자·신도 300여명 모여 체육대회

경기 사이사이 풍물패 코믹 춤사위 분위기 업~



예천지역민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줄다리기를 하는 스님들의 표정이 밝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원칙의 등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선물에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기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신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의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 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칙의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담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 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 오랫동안 참성기도 하시는 분
- ※ 허약한 靑壯
-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 이력배가 냉하신 분
-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 권장
-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칙의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품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의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걸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은행석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의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C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악성종양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C의 고열이 발생 원칙의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C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정 ◆ 의료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